10가지 재앙과 유월절<출애굽기12:1-42>

* 먼저 10가지 재앙이 온 이유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가르치시고 출애굽과 유월절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얼마만큼 존귀하게 하시고 복 주시는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과 출애굽과 유월절을 통해 새로운 나라 새로운 민족 새로운 시간을 명령하고 제시하시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비와 5대 제사를 통해서 완성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또한 출애굽과 10가지 재앙과 유월절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과 비젼은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와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며 존귀하고 아름답게 천사가 수종 드는자로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는 자로 만들어 주신 것인데 이것은 이미 만들어진 미래완료형 시제임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이 되고 삶의 의미와 목적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1) 10가지 재앙

첫 번째 재앙은 애굽의 최고 큰 신 나일강이 피로 변하여 일주일 계속되는 재앙, 두 번째 재앙은 부와 다산의 상징인 개구리 재앙, 세 번째 재앙은 티끌을 이로 만든 이 재앙, 넷째 재앙은 파리재앙으로 사람들을 괴롭게 만듭니다. 우리가 문화라는 이름으로 이 시대의 삶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영적으로 얼마나 답답하고 미련한 것 인가를 보여주고 있으며 죄를 구분하는 지혜를 가지라는 교훈과 약속을 지키지 않는 바로의 모습을 보며 우리들에게 모세의 영도 있지만 이런 바로의 영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모세가 3일 길을 간다는 것은 추적이 불가능하고 구별되고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악질재앙, 여섯 번째 악성종기 재앙으로 사람들을 괴롭게하고 가축이 죽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는 고센지역은 아무런 피해가 없음을 바로가 알면서도 교만이 가득한 바로는 돌이키지 않습니다. 무엇이든지 영혼과 마음에 교만과 분노의 홍수가 있으면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이제 하나님은 본격적으로 일곱 번째 불덩이와 천둥, 번개와 함께 우박 재앙을 내리시는데 역시 경고의 말을 들은 애굽 사람들과 고센 땅은 피해를 보지 않습니다. 재앙은 점점 세어집니다. 타락한 이 시대에는 갑절의 영감이 필요하고 갑절로 강력한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박으로 모든 것이 황폐하게 되자 바로는 어린아이는 두고 장정들만 나가라고 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타협할 것도 있지만 너무 쉽게 타협하는 것은 영적으로 바보 같은 모습임을 알고 하나님 테두리 안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고 살아야 함을 잊지 마십시오. 여덟 번째 메뚜기 재앙으로 남아 있는 것 모두 없애자 바로의 급한 부탁으로 모세가 메뚜기를 없애는데 바로는 마음이 변하여 약속을 어깁니다. 아홉 번째 사흘 동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공포가 임하는 흑암 재앙을 내리자 모두 데리고 가되 가축은 놓고 가라고 하는 바로의 완악한 모습을 봅니다. 우리에게도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순종하지 않는 모습이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바로의 말에 모세는 모든 가축을 데리고 나가야 한다고 양보하지 않습니다. 이에 화가 난 바로는 떠나서 다시는 자기 얼굴을 보지 말라고 하는 바로의 참 교만하고 미련한 모습으로 장자가 죽는 열 번째 재앙까지 맞게 되고 홍해에 수장되며 애굽이 망하기 시작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도 자존심 싸움으로 인해 영적으로 망치는 일이 너무 많은데 영적으로 조금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이 품어 주어 자존심 싸움으로 영혼이 망가지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열 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을 앞에 두고 하나님은 은금 패물을 구해서 떠나라 하십니다. 전혀 필요할 것 같지 않은 은금 패물은 광야 생활 중 성막을 지을 때 쓰여 집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주실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2) 유월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교절과 인방에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이 넘어 가는 유월절에 대하여 말씀 하시고 많은 경고에도 듣지 않는 바로에게 장자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이 모두 죽는 무서운 재앙을 내리시자 밤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 모두 데리고 나가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의 말대로 준비하는데 애굽 사람들은 자기들의 모든 것을 다 내어 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라암셋을 떠나 숙곳에 이른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표 430년이 되는 정확한 그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커 보이지만 세밀하고 정확하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10가지 재앙과 유월절과 출애굽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는 것으로 이스라엘을 해방하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계시하고 아브라함의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 바로의 교만과 강팎함에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하시어 자유와 해방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예배와 산제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은 바로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임을 보여주시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주셔서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한 신임을 보여 주시며 여호와 하나님께만 영생과 사망의 권세가 있음을 알려 주시고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이 별세로 승리하신 것처럼 성도들도 별세의 신앙으로 승리를 이루게 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된 신이요 창조주요 구세주요 심판주 이심을 알고 증명하고 증거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맞추는 중간태 신앙으로 안식과 열정의 질서를 찾으며 동시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내 시간을 맞추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맞추어 살고 있는 시간표가 내 시간인지 하나님 시간인지 세상의 시간인지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시간표 즉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과 흐름을 알고 느끼고 보이는 성숙한 신앙생활로 10가지 존귀함과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